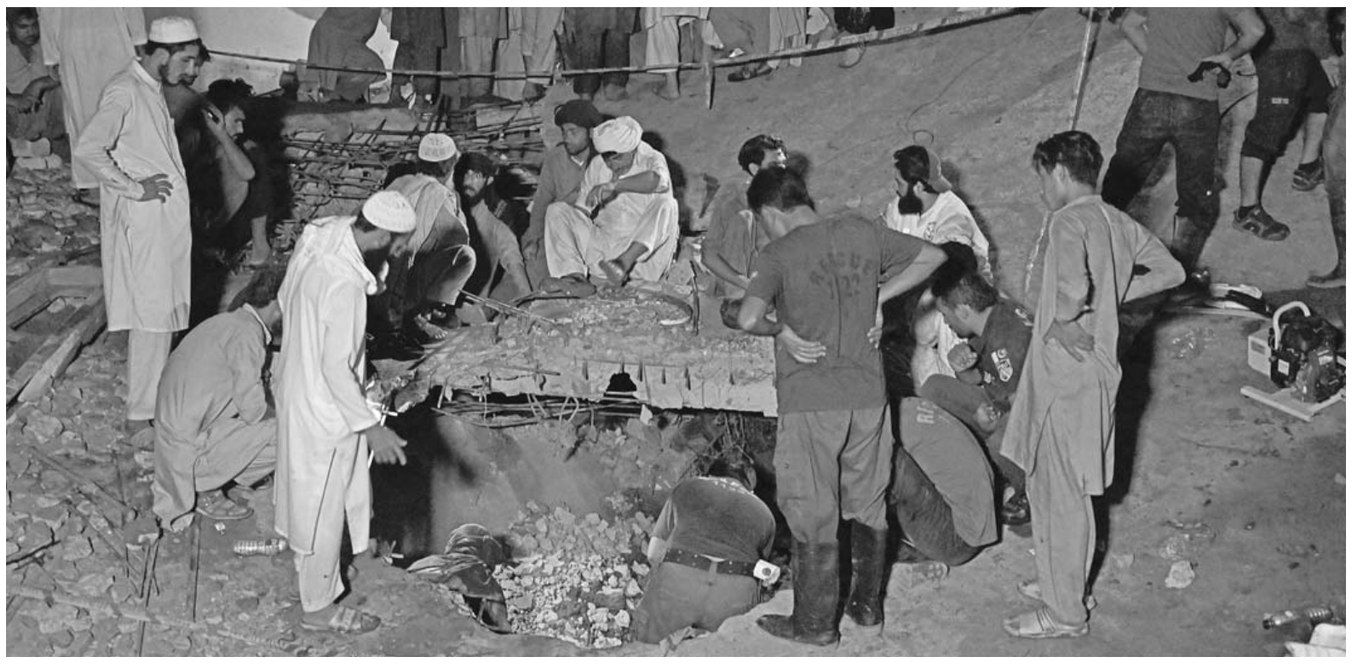
‘파키스탄 기습 폭우’ 사망자 늘어…6월말부터 660명 숨져

홍수로 340명 숨진 북서부 지역 또 폭우…20명 추가 사망

150명 여전히 실종…이달 21일-내달 10일 2차례 더 폭우



18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북부 산악 지역인 카이버파크툰크와주 스와비 지구 돌라리 마을에서 폭우로 무너진 가옥 잔해 속에서 구조대원들과 주민들이 희생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최근 기습 폭우로 큰 홍수가 발생해 340명 넘게 숨진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서 또 폭우가 쏟아져 20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몬순 우기를 통틀어 따지면 폭우로 66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19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 스와비 지구 글로리 마을에 폭우가 내려 최소 20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또 주택 15채가 파손됐으며 글로리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도 홍수 피해를 봤다.

나스룰라 칸 스와비 지구 부청장은 “폭우로 인해 많은 주민이 잔해에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렸다”며 “비는 그쳤지만, 마을로 이어진 도로가 파손돼 구조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구조대원도 신화통신에 “통신망이 끊겨 피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일부 구조대원들은 걸어서 (현장으로) 접근하고 있어 구조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이버파크툰크와주는 지난 15일 갑자기 내린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340명 넘게 숨지고 150명가량이 실종된 지역이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부네르 지구에서만 200명이 넘게 숨졌다.

부네르 지구에 사는 대학생 사힐 칸(24)은 로이터 통신에 “아이들을 포함해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며 “종말같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부네르 지구에 있는 시장과 거리에서는 가게와 주택이 최대 1.5m 깊이의 진흙에 파묻혔고, 차량과 개인 물품이 건물 잔해와 뒤섞인 채 방치됐다.

카이버파크툰크와주 당국은 피해가 심각한 부네르 등 5곳을 재난 피해지역으로 지정했고, 일부 주민들은 고지대에 설치된 임시 피난소에 머무르고 있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NDMA)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0일 사이에 최소 2차례 더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도 히말라야 지역과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이른바 ‘구름 폭우’가 자주 발생한다.

보통 1시간 동안 100㎜ 이상 비가 내릴 때 구름 폭우라 부르는데 지난 15일 부네르 지구에는 같은 시간 동안 150㎜ 이상의 비가 쏟아졌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매년 6-9월 몬순 우기가 이어진다.

이 기간에 내리는 비는 극심한 무더위를 식혀주고 농작물 재배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지역의 하수와 배수 시설이 열악한 탓에 대규모 인명 피해도 일으킨다.

지난 6월26일부터 최근까지 파키스탄에서 폭우로 660명이 숨지고, 935명이 다쳤다.

2022년에도 파키스탄에서 기록적인 홍수와 폭우로 1천700명 넘게 숨졌고, 집계된 경제적 손실도 400억 달러(약 55조6천억원)에 달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한국계 교토국제고, 日고시엔 4강 진출 좌절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의 ‘여름 고시엔(甲子園)’ 연속 우승이 무산됐다.

지난해 여름 고시엔 우승팀인 교토국제고는 19일 오전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한신고시엔 야구장에서 열린 고시엔 8강전에서 야마나시현 대표 야마나시가쿠인고에 4-11로 져 4강 진출이 좌절됐다.

교토국제고는 1회초 선취점을 내며 좋은 출발을 했으나, 이후 야마나시가쿠인고 타자들이 교토국제고 에이스 니시무라 잇키를 공략해 대량 득점했다.

교토국제고는 2021년 처음 여름 고시엔에 진출한 이후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국대회에 출전했으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우승했다. 학교 규모가 작고 야구부 역사도 20여 년에 불과한 교토국제고의 우승은 기적으로 평가됐다. /도쿄=연합뉴스

스페인 역대급 산불 ‘산티아고 순례길’ 일부 폐쇄

폭염과 최악의 산불이 스페인을 덮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보 순례길인 산티아고 길까지 일부 폐쇄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에만 스페인 갈리시아와 카스티야, 레온 지역에서 산불 20건이 발생해 임야 수천 ha가 불에 탔다. 이에 당국은 이 지역 철도 운행을 중단하고 산티아고 순례길 구간 중 50㎞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스페인 서쪽 끝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시로부터 프랑스를 연결하며, 트래킹 등을 위해 여름철 수천 명이 찾는다.

유럽산불정보시스템(EFFIS)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산불은 현재까지 스페인에서 마요르카섬 면적과 맞먹는 임야 34만4천400ha를 태웠다.

이는 2006년 이래 가장 넓은 산불 피해 면적이며,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간 평균 산불 피해 면적보다 4배 이상 큰 규모다. /연합뉴스

中, 해외드라마 방송 추진…‘9년’ 한한령 해제 신호탄 되나

“법률·제도 구축 저작권 보호 강화”

숏폼 드라마 TV 진출 장려·지원

중국이 드라마를 포함한 해외 우수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개방의 문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약 9년 동안 이어져 온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완화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19일 상관신문과 재련사 등 중국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의 방송·인터넷 감독 기관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은 ‘TV 대형화면 콘텐츠를 한층 더 풍부하게 하고 라디오·TV·영상 콘텐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수한 해외 프로그램의 도입 및 방송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률·법규의 제도 정비를 통해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단서도 달았다.

당국은 또 우수한 숏폼 드라마의 TV 진출을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편당 약 2분 분량으로 높은 몰입감을 주는 숏폼 드라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양질의 콘텐츠 공급을 늘리려는 기조 아래 TV 드라마의 콘텐츠 심사 업무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관련 보도에 해외 드라마 쿼터(할당량)가 얼마나 될지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인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 전날 중국에서는 미디어 관련주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 ‘저장화처(浙江華策) 영화·텔레비전’ 주가는 상한가(+20%)를 찍었다.

블룸버그는 광전총국이 앞서 지난 15일 드라마 콘텐츠 제작·혁신 증진을 위한 조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는 현지 보도가 호재로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한한령도 본격적으로 풀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커진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2016년께부터 한국 음악·드라마·영화 등을 제한하는 한한령을 비공식적으로 적용해왔다.

공식적으로는 중국 내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차단된 가운데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폭싹 속았수다’ 등의 한국 드라마가 음지에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공식 수입이 안 된 이른바 ‘K-드라마’를 불법으로 ‘도둑 시청’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 3월 봉준호 감독이 제작한 할리우드 영화 ‘미키 17’이 중국에서 개봉하거나 지난해 말 미국 국적의 한국 인디가수 ‘검정치마’가 공연하는 등 관련 당국의 우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또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가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정보기술(IT) 공룡’ 기업 텐센트 산하 텐센트 뮤직이 SM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로 올라서는 등 K-팝 업계에도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 이를 해제하는 조치를 직접 발표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